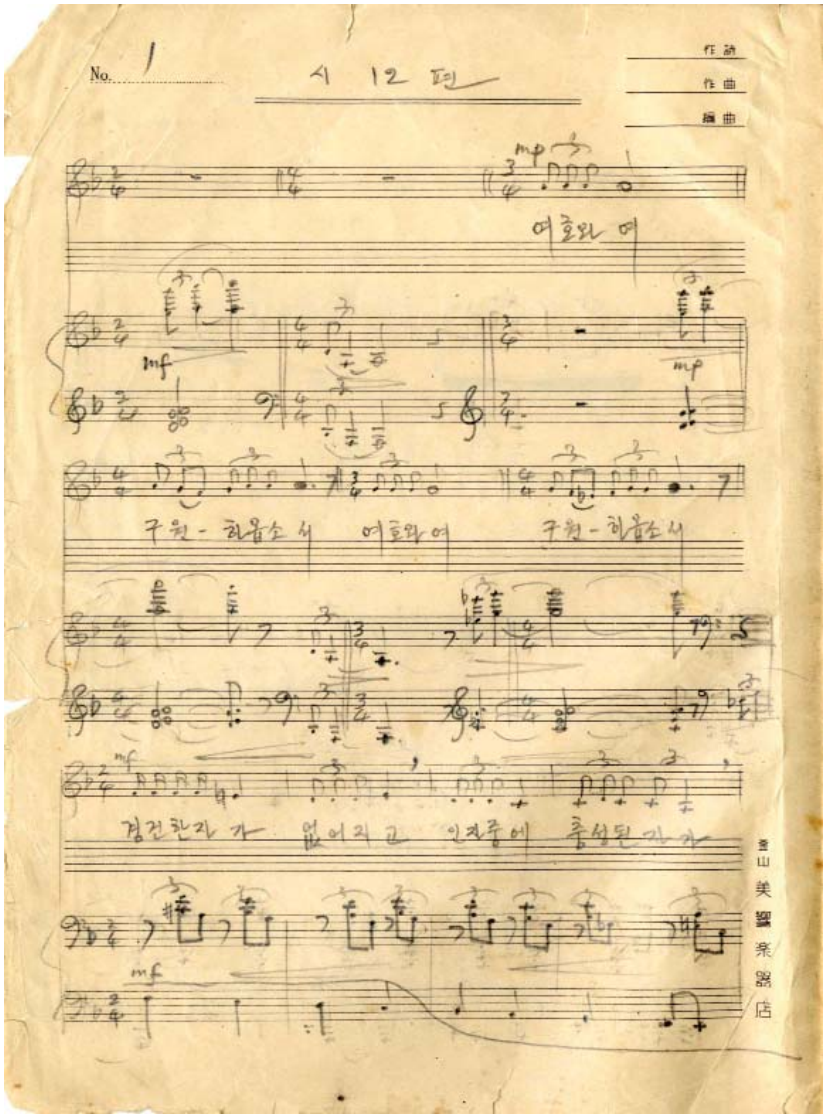
작품 개요

「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」는 시편 12편을 가사로 하여 작곡자가 30세 때인 1952년 6월 13일 작곡되었다. 이 곡은 1953년 5월 해군본부 군종감 정달빈 목사님의 초청으로 부산 앞바다에 정박한 LST(상륙함) 위에서 드린 예배에서 부인인 알토 유경손(柳慶孫, 1921~2011)의 독창으로 초연되었고, 1954년 1월 20일 출판된 나운영의 2번째 가곡집『다윗의 노래』(한국현대음악학회)에서 출판되었다.